

4대 공립 광주고·광주일고·광주여고·전남여고

‘명문고 부활’ 팔 걸었다

한때 ‘실력 광주’의 대표 주자로 전국적인 명성을 떨쳤던 광주일고, 광주고, 광주여고, 전남여고 등 4대 공립고가 ‘명문고 부활’ 프로젝트에 시동을 걸었다.

‘공립고 진학=실력 저하’라는 왜곡된 이미지 때문에 광주지역 학부모와 학생들이 사립고교를 선호, 우수 신입생이 이들 공립고를 꺼려하는 분위기를 불식시키기 위한 노력이다.

동문회와 광주시교육청도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기로 해 그 성과가 주목된다.

변화의 선두주자는 광주고다. 광주고는 지난해부터 ‘공격적 공교육’을 기치로 내걸고, 실력 향상에 집중하고 있다.

2009년 입시에서도 광주에선 유일하게 서울대 의대 합격생 2명을 배출하고, 연·고대 등 수도권 주요 대학에 30여명을 합격시키는 등 변화는 이미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변화의 중심엔 젊은 교사진이 자리 잡고 있다. 광주고 교사의 평균 연령은 43세에 이를 정도로 젊다. 이들은 휴일 무료 심화학습은 물론

광주고 - 젊은 교사들 특별 입시팀 구성
광주일고 - ‘DREAM·FIRST·재도약’ 기치
광주여고 - 수능 대비 개인별 교재 개발
전남여고 - 수도권 대학 대거 합격 ‘두각’

론 방과 후 학습 등에 자발적으로 나서는 등 ‘실력 높이기’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학기초 일선 고교의 골칫거리였던, 담임기과 현상도 광주고에선 사라진 지 오래다.

김용하 광주고 교장은 “공립고는 공부할 안 사킨다고 하는 데, 이는 잘못된 정보에서 비롯된 것”이라면서 “1학년 입학 때 성적과 3학년 졸업 때 성적을 비교해 보면 사립고보다 실력이 훨씬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공립고의 부활을 자신했다.

과거 광주고와 함께 우수 학생 배출을 양분했던 광주일고도 명문고 살리기에 ‘올인’중이다.

광주일고는 올해 ‘DREAM·FIRST·재도약’ 프로젝트를 가동한다. ‘동문과 함께 만드는 광주일고

의 새로운 역사’가 핵심이다.

사회 저명인사로 활약중인 선배를 초청해 강연회를 열고, 선배배간 대화의 시간을 마련해 모교의 자긍심을 높인다는 것이다. 또 선배 1명이 후배 1명을 전담 지원하는 ‘멘토링 시스템’도 도입하기로 했다.

‘실력 여걸’을 대량 배출했던 광주여고와 전남여고도 명문고 부활을 위해 삼기일전하고 있다.

지난 1923년 동구 장동에 동지를 둔 광주여고는 개교 88년만인 오는 2010년 2월 화정동 이전을 앞두고 교직원과 학생, 동창회를 중심으로 명문고 부활을 다짐하며 교육 시스템을 재 정비하고 있다.

교사들은 수능 대비 개인별 교재를 개발해 활용하는 한편, 수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수업 시작 5분

전에 교실에 입실하는 등 면학 분위기 조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덕분에 지난해 전국청소년과학 탐구대회 대상, 과학동아리 최우수상 등 각종 전국대회에서 탁월한 성적을 거뒀다.

전남여고도 이들 3개 고교와 교류를 통해 비슷한 시스템을 운영중이다. 특히 최근 들어 대학입시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며 선전하고 있다.

2009학년도 입시에선 전체 363명 중 서울대 3명을 비롯, 연·고대 등 수도권 대학에 49명이 진학했고, 전남대와 조선대 등에도 255명을 합격시키는 등 사실상 4년제 대학 전원 합격이라는 기록을 달성했다.

이들 공립고의 각 동문회도 부활 프로젝트에 가세해 매년 수억원의 장학금 지원을 약속하는 등 힘을 보태고 있다.

안순일 광주시교육감은 “공립고가 살아나야만 공교육도 살아날 수 있다”며 “이들 4대 공립학교의 ‘변화 바이러스’가 모든 고교에 전파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물은 우리의 생명” 광주환경운동연합은 22일 광주시 서구 양동고 등 광주권 일대에서 광주지역 초·중학생 50명을 대상으로 ‘2009 물의 날 기념행사’를 가졌다. 환경운동연합 회원이 학생들을 지켜보는 가운데 수질검사를 하고 있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중학생 교육청서 자살 소동

지난 21일 정오께 광주 서부교육청 높이 15m의 옥상에서 광주 중학교 2년 C군(15)이 투신자살을 기도하는 등 한바탕 소동을 피웠으나 출동한 소방관 등에 무사히 구조됐다. C군은 사고 직전 서부교육청 학생 생활상담센터에서 상담을 끝내고 돌연 옥상으로 올라가 자살소동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형 기자 golee@

의붓딸 성폭행·학대 양부·친모에 징역형

‘묻지마 범죄’ 판친다

형사정책팀 분석, 갈수록 지능화·흉포화
광주·전남서도 확감·우발적 살인 잇따라

광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구길선)는 성폭행 처벌법과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49)씨에 대해 징역 7년을, 김씨의 아내 민모(41)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4년 민씨와 재혼한 뒤 지난해 6월 의붓딸 김모(12)양과 강제로 성관계를 맺는 등 2006년부터 성폭행과 강제 추행을 일삼았다.

김씨는 또 김양이 “돈을 훔쳤다”며 화장실과 창고 등에서 3~5일씩 감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씨는 김양의 친모임에도 이같은 상황에 대해 “새 아빠 말대로 하는 게 좋다”며 자·간접적으로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을 들어 광주·전남지역에서 살인·강도 등 강력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안도 어머니 방화치사(3월18일), 세모자 살인(2월24일), 50대 여교수 피살(2월6일) 사건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범죄는 대개 범인이 확감에 목 적 없이 저지른 ‘묻지마식 범죄’로 재산 등의 문제로 인한 기존 범죄 양민씨는 김양의 친모임에도 이같은 상황에 대해 “새 아빠 말대로 하는 게 좋다”며 자·간접적으로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이는 2006~2007년 2년 새 발생한

살인사건의 패턴 분석에서도 뚜렷이 드러난다. 지난 19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대검찰청의 ‘범죄분석자료’를 재분석한 결과 이 기간 전국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은 2천188건이다. 이 가운데 광주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은 38건으로 전체의 1.7% 수준이다.

동기별로는 확감 살인 등 우발적 범행이 687건(31.4%)으로 가장 많았으며, ▲보복 및 가정불화 308건(14.1%) ▲사회현실 불만 88건(4.0%) ▲생활비 마련 및 사욕 19건(0.9%) 등의 순이었다. 사회현실 불만에 따

른 살인사건(2007년 44건, 2006년 32건)의 경우 해마다 늘고 있는 추세다. 양극화 현상이 가중되면서 사회와 부자들에 대한 불만이 범죄라는 극단적인 형태로 표출되고 있는 것이다.

범인과 피해자와의 관계도 일면식도 없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범행이 많았다. 면식 없는 타인에 의한 살인사건이 366건(16.7%)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미상 357건(16.3%) ▲애인 197건(9.0%) ▲친구 69건(3.2%) 등의 순이었다.

전문가들은 경찰의 순찰강화와 함께 범죄 발생에 관해 경찰서와 구청 등이 그 정보를 신속히 공개해 지역 주민의 경각심과 결속력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밀렵감시단 간부가 ‘불법 어로’ 목인

사채업자 동원 협박 돈 뜯어

회순경찰, 40대 구속

불법 어로행위를 눈감아주겠다는 명목으로 차용증을 받아낸 뒤 사채업자를 동원해 돈을 뜯어낸 밀렵 감시단체 간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회순경찰은 20일 불법 어로행위 목인을 대가로 받기로 한 돈을 주지 않자 사채업자와 함께 협박해 돈을 뜯어낸 서모(48)씨에 대해 공동공범 혐의로 구속하고 사채업자 류모(3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모 밀렵 감시단체 전남본부장으로, 2006년 4~5월 전남지역 강과 호수의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불법 어로행위를 하던 김모(44)씨 등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고발하겠다”고 협박, 김씨로부터 500

만원을 받고 다른 2명으로부터 650만원 받은 혐의다.

서씨는 김씨 등에게서 불법 어로행위를 눈감아 주는 대신 부당이득금의 20%를 받기로 했지만 어획량이 적어 김씨 등이 돈을 주지 않자 이들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서씨는 이들에게 1인당 500만원씩 차용증을 쓰게 하고 김씨에게서 곧바로 500만원을 받아 냈지만, 다른 2명이 1년이 지나도록 돈을 주지 않자 류씨를 통해 650만원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서씨가 작성한 100여장이 넘는 불법 어로단속 일지를 확보하고 서씨를 상대로 여죄를 깨고 고발하겠다”고 협박, 김씨로부터 500

【화순=조성수기자 css@kwangju.co.kr】

속옷 절도범 범행 현장서 ‘물품’



○6개월 전 속옷을 훔친 집에 또 다시 들어가 물품을 훔치려던 30대 남성이 피해자의 집에서 태연히 잠을 자다 경찰사행.

○광주북부경찰은 22일 가정집에서 속옷 등을 상습적으로 훔친 이모(30)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전남 새벽 3시에 광주시 북구에 사는 A(여·38)씨의 집에서 속옷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 일곱 차례에 걸쳐 30만원 상당의 여성 속옷을 훔친 혐의.

○이씨는 6개월 전에도 A씨의 집에 침입해 속옷을 훔쳐 달아났으며 이날 또다시 집에 몰래 들어갔다가 속옷을 훔치려 하자 A씨의 딸(16)방에 들어가 잠을 잤는데, 화장실에 가기 위해 일어난 A씨의 신고로 들켰다.

【이종형 기자 golee@kwangju.co.kr】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2개>

사건번호	물건	소재지 및 면적 [㎡]	용도	입찰받기위해 최저매각가격 [만원/㎡]	비고
2008다1 8100	1	전남도 진안군 임피리 275-1 314㎡ 지사	대	15,327,000	입찰매각, 지사임의 최고 및 주회로 1층, 2층
2008다1 8100	2	전남도 진안군 임피리 275-1 314㎡ 지사	대	35,201,000	입찰매각, 지사임의 최고 및 주회로 1층, 2층
2008다1 8107	1	전남도 진안군 임피리 275-1 314㎡ 지사	대	10,418,500	입찰매각, 지사임의 최고 및 주회로 1층, 2층
2008다1 8107	2	전남도 진안군 임피리 275-1 314㎡ 지사	대	13,418,500	입찰매각, 지사임의 최고 및 주회로 1층, 2층
2008다1 7197	1	전남도 진안군 임피리 275-1 314㎡ 지사	대	3,577,200	입찰매각, 지사임의 최고 및 주회로 1층, 2층
2008다1 7197	2	전남도 진안군 임피리 275-1 314㎡ 지사	대	10,183,700	입찰매각, 지사임의 최고 및 주회로 1층, 2층
2008다1 4281	1	전남도 진안군 임피리 275-1 314㎡ 지사	대	14,741,200	입찰매각, 지사임의 최고 및 주회로 1층, 2층
2008다1 5284	1	전남도 진안군 임피리 275-1 314㎡ 지사	대	13,072,000	입찰매각, 지사임의 최고 및 주회로 1층, 2층
2008다1 105 [중개]	1	전남도 진안군 임피리 275-1 314㎡ 지사	대	13,072,000	입찰매각, 지사임의 최고 및 주회로 1층, 2층
2008다1 5925	1	전남도 진안군 임피리 275-1 314㎡ 지사	대	9,288,000	입찰매각, 지사임의 최고 및 주회로 1층, 2층
2008다1 7125	1	전남도 진안군 임피리 275-1 314㎡ 지사	대	3,640,000	입찰매각, 지사임의 최고 및 주회로 1층, 2층
2008다1 7125	2	전남도 진안군 임피리 275-1 314㎡ 지사	대	3,640,000	입찰매각, 지사임의 최고 및 주회로 1층, 2층
2008다1 5720	1	전남도 진안군 임피리 275-1 314㎡ 지사	대	5,516,400	입찰매각, 지사임의 최고 및 주회로 1층, 2층
2008다1 5720	2	전남도 진안군 임피리 275-1 314㎡ 지사	대	5,516,400	입찰매각, 지사임의 최고 및 주회로 1층, 2층